

# 황교안 '19금 자료'에 사면 관련 자문 포함

### 메르스에 묻혀 맥빠진 청문회...자료 열람 싸고 3시간 파행도

### 김광진 의원, 아들 군 주특기 보병 → 행정병 변경 의혹 따져

9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19건에 대한 열람이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19건의 비공개 수입내역 자료의 열람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3시간 가까이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결국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19건의 자료들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우고 나머지 내용을 열람한 뒤, 오후 7시에 청문회를 속개했다. 특히, 19건의 비공개 수입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법무법인에서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관예우 지적이 제기되자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1·2심에서 패소한 청호나이스 정 모 회장은 황 후보자의 고교 같은 반이었던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황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황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부산 여자가 가가 세고 드세다"라는 취지가 말한 데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장남

의 대구 지역 군 복무기간과 황 후보자의 대구고검장 근무 기간이 겹친다"고 지적한 뒤, "아들의 군 시절 주특기가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또 행정병으로 바뀌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 함께 야당 청문특위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공안검사 오랏동안 살아온 만큼

경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의 홍준하 의원은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경제 침체가 오래되고 있다"며 "후보자는 우리의 현재 경제 여건을 어떻게 보나"고 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어렵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미약한 회복세"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물었으나 황 후보자는 "200만원"이라고 답변에 이어 내

수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 전체 취업인구의 21%에 해당하는 539만명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이다.

우 의원은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건 민생인데, 어떠한 민생대책을 펼칠지 걱정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년실업 대책,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등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황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질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답변 속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오후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을 빚으며 중단되자 황 후보자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곤 위원장 "조국 교수도 후보군...국회의원몫 3~4명 압축"

### 새정치 혁신위원 오늘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르면 10일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공역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을 대체로 압축해가고 있다"며 "내일(10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몫 혁신위원 1명에 대해선 "3~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원으로 뽑히는 현역 의원의 경우 '총선 불출마'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혁신위원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후보군에) 배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선에 대해) 누구와도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추천을 받아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라며 인선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혁신위원은 당 세선의 칼자루를 쥐고 내년 총선의 공천 개혁까지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혁신위원은 당내 인사 4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당내 인사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1명, 원외 지역위원장 1명, 당직자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원외위원장과 기초단체장, 당직자들은 각각 협의체를 구성한 뒤 2~3명의 후보군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난 6일 기초단체장 몫으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을 추천했고,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8일 고연호(서울 은평을)·강래구(대전 동구)·최인호(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을 추천했다.

사무직 당직자들도 '당직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당무혁신실의 홍욱표 부장과 이주환 차장을 추천했다.

혁신위원으로 들어갈 국회의원의 경우

김 위원장이 추천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인물이 추천된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외부위원 6인은 연령·성별·지역·직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당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려고 했다"며 "거의 80% 이상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선) 자료 준비는 거의 된 상태지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국회 일정과 겹쳐서 상황을 보고 하루 정도는 늦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혁신위원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5·24조치 해제, 北 개방 이끌어야"

### '6·15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5·24조치 해제를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와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독일이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로 통일 이후,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했다면서 5·24 조치 해제는 "남북이 사는 길이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동북아 평화협력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 등 수많은 제안들만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면서 이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돈도 벌고 평화도 얻는 진정한 창조경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북한 당국이 이를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함흥, 청진 등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북 핵 문제와 관련, "각국 정보당국과 국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최소한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소 20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는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분단 극복의 집약적 표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 발전할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장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도 이날 "남북의 화해와 협력 또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진다면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경제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가라운지

### 김동철, 빈집 철거 공원·주차장 확충 관련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하는 등 주거환경 저해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빈집을 방치하기보다는 공원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황주홍, '학교 폭력 예방·대책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9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안에 변호사나 수사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자의 재심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기해



지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교사만으로는 정확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

려웠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장 내 내 조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재심 심사기간이 30일에 불과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